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19년 4월 26일(금)

..(음력 3월 22일)..

Пятница

26 апреля 2019г.

№ 16(116833)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지난 22일(월) 사할린주정부 대강당에서 <사할린주 팀>인재발굴경연대회 우수자 발표·시상식이 있었다.  
(사진 : 사할린 주정부 홍보실 제공)

## 단신

### 사할린주정부 부수상으로 2명 임명

4월 23일, 사할린주정부 부수상 권한 대행으로 구진 위탈리(1959년생)가 임명되었다. 그는 사할린주정부의 모스크바 대표지부 지부장을 맡게 되었다. 주정부 부수상을 하기 전에 그는 러시아경제개발부 대외 경제 활동 개발 및 조정 담당 국장으로 활동한 경로로 전해졌다.

같은 날 투자유치 및 전략프로젝트 집행 담당 주정부 부수상으로 포드베료즈니 키릴(1980년생)이 부임했다. 그는 <로스아톰>공사에서 개발부 부장으로 역임한 바 있다. 부수상으로 부임하기 전에 사할린주지사 고문 권한 대행으로 하고 있었다. 포드베료즈니는 <사할린주 팀> 인재발굴경연에 참가하여 최종 우승자로 선정된 바 있고, 주지사와의 면담 후 부수상으로 임명되었다고 전해졌다.

### 사할린주, 올해의 교사 경연대회 진행중

4월 22일부터 30일까지 <올해의 교사 2019> 사할린주 단계가 진행된다. 올해 경연대회에는 주내 구역 12개를 대표하는 18명의 교육전문가가 참가한다.

지난 23일 열린 개막식에서 사할린주정부 세르게이 나우모브부수상, 심사위원장을 맡은 나탈리야 무라쇼와 주교육부 장관 등이 참가자들을 환영했다.

교육자들은 그 동안 공개수업, 활동교실, 방법문제미나를 진행하고 자신의 교육기회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경연대회에 초등학교 교사, 과목별 교사, 유치원 교원, 언어 치료사, 상담교사들이 참가한다. <사할린주 올해의 교사>와 <사할린주 학령전 우수 교육자> 두 부문에서 최종 우승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경연대회 우승결과는 30일 시상식에서 발표된다.

### 제34회 사할린주한인동포탁구대회 개최

4월 27일(토) <애플>회사 운동실(폴레와야 거리, 6번지)에서 사할린주탁구협회 주최하에 제34회 한인동포탁구대회가 개최된다.

대회는 오전 10시 시작하며, 주최측은 많은 분들이 행사장을 찾아 응원을 부탁 드린다고 전했다.

### 주한인회, 한인문화센터 행사 발표

사할린주한인회(회장 박순옥)는 4월말과 5월초에 한인문화센터에서 하는 행사를 발표했다.

4월 27일(토) 17시 60+클럽의 공식 개설 행사가 개최되며 프로그램은 전통 의식(돌), 노래 및 춤, 다과회로 구성된다고 전했다.

5월 4일(토) 오후 3시 사할린한인협회 주최하에 어버이날 기념행사가 개최된다. 주최자들에 따르면 이 행사는 사할린1세 어르신들을 위주로 하는 행사다.

## 친애하는 여러분!

봄과 노  
동의 날을  
축하합니다!  
우리는 5월  
1일을 전통  
적으로 동료  
와 친구들과  
함께 맞이하  
면서 전문적  
으로나 개인적으로 새로운 성  
취를 달성하기 위한 긍정적  
기운을 충전시키곤 합니다.  
그리고 물론 사할린주가 달성  
한 성과를 기념합니다.



우리 지역은 성공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는 사할  
린과 쿠릴열도 주민 여러분의  
공로가 큼니다. 여러분은 각  
자가 공동업적에 크게 기여했  
습니다. 이 노력은 앞으로 더  
큰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향후 보  
다 큰 경제적 성장을 이룩할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을 갖추  
고 있으며 무엇보다 사회복지  
분야를 근본적으로 갱신하기  
위한 기반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성공과  
건강, 평화와 행복을 기원합  
니다. 여러분, 명절을 축하합  
니다!

사할린주 지사 권한 대행  
알레리 리마렌코

## 푸틴 대통령,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 가져

4월 25일(목) 러시아 대통령 블라지미르 푸틴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정상회담은 약 3시간 만에 종료됐다.

김정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위해 전날 전용열차로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했고 푸틴 대통령은 모스크바에서 회담날 오전에 항공기로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했다.

외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25분경(현지시간) 단독·확대 회담을 모두 마쳤다. 앞서 두 정상은 이날 오후 2시10분쯤부터 단독 회담을 시작했고, 오후 4시부터 수행원들이 배석한 확대 회담에 들어갔다.

외신에 따르면 확대 회담에는 러시아 측에서 유리 트루트네프 부총리 겸 극동연방주 대통령 전권대표,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부 장관, 유리 우샤코프 대통령 외교담당 보좌관,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대사, 옌게니 지트리흐 교통부 장관,



알렉산드르 코즐로브 극동개발부 장관, 올렉 벨로조로브 철도공사 대표이사, 아나톨리 야놉스키 동력부 차관, 조선공화국 측에서는 리용호 외무상, 최선희 외무성 제 1부상 등이 배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블라지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5일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있어서 적극적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3면에 계속)

## 주정부, <사할린 팀>경연대회 최종 우승자 55명 발표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2월 중순에 <사할린주 팀>인재발굴경연이 시작되었다. 이에는 당초 러시아의 42개 지역 주민 1300여명이 참가했는데 여러 단계의 경연과정을 통해 지난 19-21일 진행된 최종 단계에는 150명이 참가

했다. 지난 22일(월) 사할린주 정부 대강당에서 <사할린주 팀>인재발굴경연대회 우수자 발표·시상식이 있었다.

경연 결과를 발표하면서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주지사 권한 대행은 최종 단계 참

가자 150중 당초 정해진 우승자 수 50명 대신 55명을 우승자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인재개발 프로젝트는 사할린과 쿠릴 섬의 미래에 무관심하지 않고 재능있고 야심찬 젊은 관리자들을 발굴했다."

(3면에 계속)

새고려신문

2019년 신문주문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19년 구독을 계속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개월 구독료는 82루블리 14코페이카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53740입니다. (본사 편집부)



# 자신의 실력을 점검하기 위해 도전

## 인재 발굴경연 우승자 이 안드레이 곤추노위츠

<사할린주 팀>인재발굴경연 대회 최종 우승자 55명 중 한 명은 이 안드레이 곤추노위츠(1981년생)이다. 그는 <가스프롬 도비차 헬프 유즈노사할린스크>회사에서 선임엔지니어로 활약하고 있다. 본사 배순신 기자는 우승자 발표날 그와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 우선 경연대회 우승자로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경연대회에 참가한 계기는요?

- 처음엔 회사 메일로 경연 참가신청내를 받아보았습니다. 사실 별 관심이 없었는데 정보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 내 수준이 어느 정도 인지 점검해 볼 겸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아마도 호기심 때문에 지원한 것 같아요. <러시아 리더>경연과 비슷한 대회란 걸 알고 난 후에 관심이 더 커졌어요. 1차 단계를 통과하고 준결승전도 무사히 통과했는데 테스트의 질의 응답에는 그리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최종 단계는 기대하지 않았어요.

- 최종 단계 과제는 어렵지 않았어요?

- 경연이니 경쟁이 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모든 활동이 긍정적이었어요. 다수 과제는 팀워크를 위한 것이라 상대방 의견, 같은 팀원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청취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분위기가 좋았고 경쟁자가 아니라 동료들을 만난 것 같았어요. 똑똑하고 능력있는

사람이 진짜 많았어요. 저보다 우승자격이 있는 사람이 우승자로 뽑지 못한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이틀간 3번 팀을 바꾸어 진행했는데, 팀이 바뀔 때마다 좋은 팀원을 만났어요. 이들 덕분에 선정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팀원 대부분이 30대인데도 불구하고 과제를 수행하면서 아이처럼 많이 즐거워서, 행사장에서 웃음소리가 많이 터졌습니다.

- 최종 단계 참가자들이 유즈노사할린스크 학교에서 특별 수업 같은 것도 했다면요?

- 네, 시상식 전 아침에 학교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제7중학교로 가게 되었는데 마침 제가 발표하는 반이 <가스프롬>이 후원하는 반이었습니다. 우리 목적은 다름이 아니라 사할린에서도 제대로 성장할 수 있다, 사할린은 가능성이 많다, 학생들이 대륙에서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 사할린에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을



실득하는 것이었어요.

-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는 오래 일하셨나요?

- 얼마 되지 않았어요. 2017년 11월에 선임건설엔지니어로 취직했습니다. 그 전에는 모스트스트로이 회사에서 오랫동안 건설엔지니어로 활약했죠. 우리는 시티몰, 아레나시티, 아쿠아파크 등을 건설했습니다. 현 가스프롬 회사에서는 역시 건설분야를 맡고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제가 제반시설 건설을 맡았어요. 제가 아는 일이고 좋아하는 일입니다.

- 원래 전공은 무엇이었습니다?

- 제가 대학을 두 곳 졸업했거든요. 먼저 하바롭스크철도대학에서 기업경영과 경제를 전공했고 사할린에 돌아와서 건설회사에서 일하게 되니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극동국립기술대학

교(현 극동연방대학교) 건설과를 통신으로 졸업했죠.

- 지금 경연대회 주최측에서 인터뷰를 하셨는데 어떤 제안이라도 들어왔나요?

- 아니요. 그저 인터뷰였어요. 그쪽에서 경력, 교육과 가족 사항 등등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자세히 저에 대해 알아보는거였죠. 한 40분 동안 얘기나누었어요. 저는 큰 야심은 없어요.

- 최종 단계에 참가한 한인 동포는 많았어요?

- 5명 정도인 것 같아요. 우승자로는 두 명이 뽑혔죠. 리정진(안드레이 보리소위츠) <스트로이인베스트> 대표이사과 저. 안드레이 보리소위츠와는 전에 알던 사이였습니다. 한번 같이 일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회사는 주청으로 공사를 맡았고 리 대표님 회사는 하청으로 작업을 했었습니다.

- 오늘 <사할린주 팀>인재발굴경연대회 우승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누구에게 알렸어요?

- 아내와 어머니(아버지 일찍 사망 - 기주주)에게 가장 먼저 문자를 보냈죠. 사실 경연에 참가한다는 걸 어머니와 아내만 알고 있었어요. 최종 단계 행사들이 주말에 있다 보니 직장에도 알리지 않았어요. 오늘 발표와 면접인터뷰가 있어서 이 사실을 알리고 잠시 외출허가를 받았죠.

- 가족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 2011년에 러시아 처녀와 결혼했는데 오랜 연애 끝에 결혼식을 했어요. 아이는 셋입니다. 맏딸은 7살, 아들은 5살, 막내딸은 1살입니다.

- 대단하시네요. 자녀가 셋이나 되구요...

- 제가 아니고 아내가 많이 수고하지요. 나름대로 돕기는 해요.

- 취미생활은요?

- 스포츠를 즐깁니다. 한 10년은 쿠도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훈련이 있는데 시간이 모자라 못 갈 때도 있습니다. 쿠도 전에는 많은 동포아이들처럼 태권도를 했어요. 림 세르게이 니콜라에위츠에게서 태권도를 배웠어요. 대학에서는 복싱을 했구요.

- 지금 하시는 일에도 만족하시고 사할린주의 예비 인재로 되었는데 혹시 주최측에서 다른 일을 제안하면 승락하실 겁니까?

- 대우만 좋다고 다른 일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전략적이고 재미있는 일이고 대우가 좋다면 도전해 볼 마음은 있습니다. 사람은 항상 공부하고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감사합니다. 늘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 이모저모

## 유즈노사할린스크, 게오르기 리본 나누기 시작

<게오르기 리본>전국행사가 4월 24일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시작됐다. 올해 이 행사에는 유즈노사할린스크자원봉사자 센터와 함께 <유나르미야>군애국사회운동 소년단과 <피오네르>펀드 열성자들도 합류했다.

4월 24일 정오 12시 행사가 체호브센터 앞마당에서 시작했다. 우선 봉사센터와 <유나르미야>의 열성자들이 승리의 상징인 게오르기리본을 시민들에게 나눠주면서 그 의미를 되새겼다. 또한 행사참가자들은 <피오네르>펀드가 준비한 대조국 전쟁의 유물전시장에 소개된 전쟁시기의 무기, 전선에서의 편지, 표창장 등등을 관람할 수 있었다.

13시에는 유즈노사할린스크 자원봉사자 센터 봉사자들이 <슬라와>광장과 <포베다>기념종합체에서 행사를 계속 했다.

<게오르기 리본>행사는 4월 29일과 5월 6일 13시부터 14시까지 체호브센터 앞마당, <슬라와>광장과 <포베다>기념종합체에서, 그리고 5월 9일 명절행사 때도 이어져 진행될 예정이다. 그 동안 리본 7000여 개가 나눠지게 된다.

###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начали раздавать георгиевские ленты

Всероссийская акция "Георгиевская ленточка" 24 апреля стартовал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этом году помимо активистов волонтерского центр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к проведению акции подключились активисты военно-патриотического общественного движения "Юнармия" и фонд "Пионер".

24 апреля в 12:00 акция началась на площадке перед Чехов-центром. Активисты волонтерского центр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и "Юнармии" вручали горожанам символ Победы и напоминали о его значении. В это же время участники акции смогли прикоснуться к реликвиям периода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на выставке фонда "Пионер", где были представлены образцы оружия военного времени, фронтовые письма, наградные листы и многое другое.

В 13:00 активисты волонтерского центр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родолжили акцию на площади Славы и в ММК "Победа".

Акция "Георгиевская ленточка" продолжится 29 апреля и 6 мая с 13 до 14 часов у Чехов-центра, на площади Славы и в ММК "Победа", а также 9 мая во время празднич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Всего за это время планируется раздать более 7 тысяч ленточек.

### Сахалинцев предлагают пройти тест по истории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Международная акция "Тест по истории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состоится 26 апреля в 11:00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универсальной научной библиотеке.

В преддверии Дня Победы все желающие во всех российских регионах смогут проверить знания и за 30 минут ответить на 30 вопросов об основных фактах и событиях всех периодов войны.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и "Юнармии" вручали горожанам символ Победы и напоминали о его значении. В это же время участники акции смогли прикоснуться к реликвиям периода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на выставке фонда "Пионер", где были представлены образцы оружия военного времени, фронтовые письма, наградные листы и многое другое.

### Сахалинцам предлагают пройти тест по истории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Международная акция "Тест по истории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состоится 26 апреля в 11:00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универсальной научной библиотеке.

В преддверии Дня Победы все желающие во всех российских регионах смогут проверить знания и за 30 минут ответить на 30 вопросов об основных фактах и событиях всех периодов войны.

Задания теста подготовили учёные во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ороны России. Организатором акции выступает общественная молодежная палата при Госдуме.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ее работу координирует молодежный парламент областной думы, 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библиотеки.

### Сахалинцев зовут на тренинг по спасению сивучей

Группа помощи морским животным "Друзья океана" совместно с клубом "Бумеранг" и Тихоокеанским центром спасения морских млекопитающих Сан-Франциско (The Marine Mammal Center) приглашает желающих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тренинге по освобождению тюленей, запутавшихся в сетях и морском мусоре, проводимом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Свободные сивучи".

Тренинг по освобождению тюленей, запутавшихся в сетях и морском мусоре, проводимом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Свободные сивучи".

Тренинг по освобождению тюленей, запутавшихся в сетях и морском мусоре, проводимом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Свободные сивучи".

Тренинг по освобождению тюленей, запутавшихся в сетях и морском мусоре, проводимом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Свободные сивучи".

Тренинг по освобождению тюленей, запутавшихся в сетях и морском мусоре, проводимом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Свободные сивучи".

Тренинг по освобождению тюленей, запутавшихся в сетях и морском мусоре, проводимом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Свободные сивучи".

Тренинг по освобождению тюленей, запутавшихся в сетях и морском мусоре, проводимом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Свободные сивучи".

Тренинг по освобождению тюленей, запутавшихся в сетях и морском мусоре, проводимом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Свободные сивучи".

Тренинг по освобождению тюленей, запутавшихся в сетях и морском мусоре, проводимом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Свободные сивучи".

Тренинг по освобождению тюленей, запутавшихся в сетях и морском мусоре, проводимом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Свободные сивучи".

Тренинг по освобождению тюленей, запутавшихся в сетях и морском мусоре, проводимом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Свободные сивучи".

Тренинг по освобождению тюленей, запутавшихся в сетях и морском мусоре, проводимом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Свободные сивучи".

(8면에 계속)

### 푸틴 대통령,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 가져

(1면의 계속)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 이후 만찬 연설에서 "양국은 아주 복잡한 정세 속에서 (외교관계 수립) 70주년을 기념했다.

최근 한반도 정세가 안정화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단독회담 모두 발언에서 "지금 전 세계의 초점이 조선반도 문제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 문제를 같이, 조선반도 정책을 평가하고 서로의 견해를 공유하고 또 앞으로 공동으로 조정 연구해나가는 데서 아주 의미 있는 대화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에서는 조선측이 북미 회담을 직접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있어서 지지하고 있다. 남북 대화를 정상화하는 데 있어서 기울이는 노력도 지지하는 입장"이라며 남북 및 북미 대화에 대한 지지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푸틴 대통령은 "역내 핵문제뿐 아니라 여러 이슈를 외교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하고 이것은 유일한 효율적 방법"이라며 "러시아는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힘을 합치면 산을 옮길 수 있다'는 조선 속담을 언급하며 "우린 앞으로도 이를 통해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제사회와 모든 이해 당사국 간에 한반도에서는 영구적 평화구축과 평화 번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정상은 이런 발언들로 비춰볼 때 이번 회담에서는 지난 2월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로 어려움에 부딪친 비핵화 협상과 관련한 공조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관측된다고 한 외신이 전했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도 비핵화와 관련한 이 같은 공감대를 재확인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 한국 통신에서) (사진: 타스 통신사)

### 주정부, <사할린 팀>경연대회 최종 우승자 55명 발표

(1면의 계속)

경연 결과를 발표하면서 알렉세이 코미사로브 사할린주지사 권한 대행은 최종 단계 참가자 150중 당초 정해진 우승자 수 50명 대신 55명을 우승자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경연 우승자들은 진정한 리더이며, 사할린주 팀에 꼭 필요한 인재들이다. 머지 않아 당신들의 아이디어들이 실현되고 첫 결과를 가져올 것을 확신한다"고 언급했다.

리마렌코 지사 권한 대행 주최로 실시된 이 경연대회는 비영리단체 <러시아는 가능성의 나라다>가 주관하에 진행되었다.

시상식에서 <러시아는 가능성의 나라다>단체 대표이사인 알렉세이 코미사로브는 경연에 국내 여러 지역 사람들이 참가했음을 언급하며 특히 최종 우승자 중에서 사할린주 외에도 국내 9개 지역 대표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것이 바로 사할린주가 매우 흥미롭고

매력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며 "사할린주는 강력한 돌파구를 기다리고 있고 이것은 공동 노력으로만 가능할 수 있음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경연대회 감독을 맡은 블라지미르 이콘니코브 사할린주사회원 위원장은 대회의 모든 단계에서 위반 사건이 없었고 주최측이 모든 참가자들에게 동등한 조건을 부여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은 우리 모두가 이겼다. 주최자들이 이기고, 참가자들이 이기고, 감독위원회가 이겼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이 경연대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졌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리마렌코 주지사 대행과 알렉세이 코미사로브 대표이사가 최종 우승자들을 시상했다. 최고 점수를 따낸 우승자 10명에게 명문대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100만루블리의 교육장려금이, 2명에게는 사회기회추진에 100만루블리씩 장려금이 차례졌다.

최종 승리자 55명 중 최고 연령자는 45세, 최소연 참가자는 25세다. 승리자들은 13개 경제분야를 대표하며 모두가 대학 학력 보유자들이다. 그들 중 36.4%는 두가지 대학을 졸업한 걸로 나타났다. 우승자 42%는 개인기업운영 경험을 갖고 있다.

이 경연에 사할린한인동포들도 참가했는데 최종 우승자로 는 <스트로이인웨스트>회사 리정진 대표와 <가스프롬 도브차 쉘프 유즈노사할린스크>회사 이 안드레이가 선정되었다. 이들은 <사할린 팀>인재발굴경연에 참가한 것이 아주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밝혔다.

<사할린 팀>경연대회는 이와 같이 인재문제 해결, 정부부처, 행정부, 교육기관 등에 젊고 활동적인 인재를 등용하여 <발전의 돌파구>를 찾아낼 팀을 구성하고자 하는 주요 목적을 달성하고 종결되었다.

(배순신 기자)

### 허진원의 <사랑하기 좋은 날>

산문시 1 / 신동엽

스칸디나비아라든가 뭐라구 하는 고장에서는 아름다운 석양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아저씨

꽃 리본 단 딸아이의 손 이끌고 백화점 거리 칫솔 사러 나오신단다. 단광 퇴근하는 광부들의 작업복

뿔주머니마다엔 기름 묻은 책 하이텍거 러셀 헤밍웨이 장자 휴가 여행 떠나는 국무총리 서울역 삼등

대합실 매표구 앞을 띄약벌 흡쓰며 줄지어 서 있을 때 그걸 본 서울역장 기쁘시겠오라는 인사 한마디

남길 뿐 평화스러이 자기 사무실 문 열고 들어가더란다. 남해에서 북강까지 넘실대는 물결 동해에서 서해까지 팔랑대는 꽃밭 땅에서 하늘로 치솟는 무지갯빛 분수 이름은 잊었지만 뿔라군이 불리우는 그

중립국에선 하나에서 백까지가 다 대학 나온 농민들 추력을 두 대씩이나 가지고 대리석 별장에서 산

다지만 대통령 이름은 잘 몰라도 새 이름 꽃 이름 지휘자 이름 극작가 이름은 훤히더란다 애당초 어느

쪽 꽤거리에도 총 쏘는 야만엔 가담치 않기로 작정한 그 지성 그래서 어린이들은 사람 죽이는 시늉을

아니하고도 아름다운 놀이 꽃동산처럼 풍요로운 나라, 억만금을 준 대도 싫었다 자기네 포도밭은 사람

상처 내는 미사일 기지도 땡크 기지도 들어올 수 없소 끝끝내 사나이 나라 배짱 지킨 국민들, 반도의

달밤 무너진 성터가의 입맞춤이며 푸짐한 타작 소리 춤 사색뿐 하늘로 가는 길가엔 황토빛 노을 물든

석양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함을 가진 신사가 자전거 꿈무늬에 막걸리 병을 싣고 삼십 리 시골길 시인의

집을 놀러 가더란다.

"이 시를 읽을 때면 막걸리 한 사발이 간절해집니다. 얼마 전 신동엽 시인의 미발표 원고를 묶은 책이 출간되었어요. 에세이, 편지 등등. 말하자면 시인의 50주기를 기념한 책인데요. 신동엽 시인은 마흔 살에 간암으로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1969년. 그래서 말인데요. 죽음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술가들에게 만큼은 신이 조금 관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렇듯 50주기 출판기념회와 같은 행사가 있을 시에는 말이죠. 잠깐 '짜안'하고 등장하는 겁니다, 시인이. 단상에 올라 그간 저승에서의 소회도 얘기하고, 아들 손주들의 꽃다발도 직접 건네 받고 그러는 겁니다. 아차! 무덤에서 나오게 되면 흙이 많이 묻어 있을 텐데요. 아니지. 아무래도 뼈만 남아 행사장에 들어섰던 수많은 관계자들이 줄행랑을 치고 말까요? 공상임에도 해결해야 할 생물학적 법칙이 쌓여 있습니다. '산문시 1'이 살아 숨쉬며 근 50년 간 우리를 위로해주니 괜히 또 이상하기만 한 '공상'의 시간을 거닐었습니다. 막걸리 한 사발 그리고 고소한 두부 한 모, 매운 김치와 함께."

서울에서 허진원. 2019.04.24.



### 제18회 세계한인언론인대회, 서울과 광주, 전남에서 개최

세계한인언론인협회(회장 전용창)는 오는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서울과 전라남도 광주, 완도, 함평 등지에서 '제18회 세계한인언론인대회'를 개최한다.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에 맞춰 '지나온 100년, 미래 100년 재외동포와 함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23개국의 70여개 재외동포 언론사 대표와 편집책임자 등 80여명이 참가한다.

대회 첫날인 29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개막식에는 김덕룡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을 비롯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소속 국회의원들, 외교부, 한국언론학회 등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회 둘째 날인 30일 오전 국회 도서관에서는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의 손자 이종걸 의원이 '지나온 100년 해외언론과 독립운동사'를 주제로 특강

을 한다. 이어 100년 전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 신문에 보도된 독립운동 관련 자료 소개와 '1인 미디어 시대, 소셜 미디어 시대'란 주제의 특강도 진행된다고 세계한인언론인협회에서 전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오후 광주로 이동해 국립 5.18민주묘지에 헌화한 뒤, 광주광역시 관계자들과 만나 광주광역시와 세계한인언론인협회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현지 시민단체 관계자들과도 간담회를 갖는다.

이어 전남 완도군과 함평군을 방문해 ▲청해진 장보고 본영과 교류협력 간담회 ▲윤선도 문화유적지 탐방 ▲함평 나비축제 현장 취재 등의 일정을 갖는다.

대회기간 중 참가자들은 또한 재외동포 기자학교 설립 등 세계한인언론인협회 추진사업과 관련한 토론회를 열고, 한국 정부와 국회 등에 요청사항 등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해 발표할 예정이다.

(본사 기자)

### 아시아나항공 "하바롭스크·사할린·시카고 노선 폐지"

2020년 이후 노선 구조개선  
채권단과 긴밀한 협조 통해 추진

아시아나항공은 23일 이사회를 열고 이날 채권단이 결정한 1조 6000억원 규모의 자금 지원 이행에 필요한 승인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날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5000억원 규모의 영구채 매입과 한도 대출(크레딧 라인) 8000억원, 보증 한도(Stand-by L/C) 3000억원 지원 등 총 1조 60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 방침을 발표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채권단의 신속한 자금 지원 결정으로 시장의 신

뢰를 조기에 회복하고 자금조달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한다"며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매각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금호산업과 협조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수익성 개선을 위해 수익성이 떨어지는 국제선 항공노선 3개를 올해 안에 정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9월 말까지 인천~러시아 하바롭스크·사할린 노선을 폐지하고, 10월 말까지 인천~미국 시카고 노

선 운항을 중단한다.

아시아나는 2020년 이후의 노선 구조개선은 매각 주안사 및 채권단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이번 채권단의 자금지원이 아시아나항공의 안정적 경영환경 구축을 위한 결정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항공안전과 국민편익을 책임지는 국적항공사로서의 소임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 В Конкурсе «Команд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бедили 55 человек

22 апреля в Дом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шла торжественная церемония закрытия финала регионального кадрового Конкурса «Команд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онкурс проводил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 поручению главы регион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при поддержке автономной некоммерческой организации «Россия — страна возможностей», флагманским проектом которой является Конкурс управленцев «Лидеры России».

На церемонии закрытия выступили врио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АНО «Россия — страна возможностей» Алексей Комиссаров, председатель Наблюдательного совета кадрового Конкурса «Команд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ладимир Иконников. Среди гостей присутствовали наставники проекта, члены Наблюдательного совета и оргкомитета Конкурса.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двел итоги Конкурса. Из 150 финалистов было определено 55 победителей. Занявшие первые 10 мест рейтинга получат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гранты по 1 млн руб. на модульную программу развития управленческих навыков в ведущих российских вузах. 2 финалиста получат гранты на реализацию своего соци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Врио Губернатора выразил надежду, что победители вольются в ряды команды Сахалина: «Кадровый проект выявил талантливых, амбициозных и небезразличных к будущему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молодых управленцев. Победители конкурса — настоящие лидеры, и именно такие люди нужны в команд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Уверен, в скором времени ваши идеи начнут воплощаться и приносить первые результаты».

Поздравил присутствующих с завершением Конкурса и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АНО «Россия — страна возможностей» Алексей Комиссаров. Он отметил, что на Конкурс подавали заявки жители из разных уголков страны. Помим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едставлены еще 9 регионов: «Это в очередной раз говорит о том, что регион очень интересный, привлекательный. Я уверен, что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ждет мощный прорыв, но сделать это можно только совместными усилиями».

Обращаясь к победителям проекта, Алексей Комиссаров отметил, что самое важное, что они получили — это знакомство друг с другом, веру в себя, рекомендации по дальнейшему развитию, общение с наставниками. «Мы живем в такое время, когда не развиваться, не учиться просто невозможно. Мы подготовили различные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программы, вебинары, которые помогут вам в дальнейшем развитии. Я вам желаю настоящего успеха, удачи для вас, дл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ля всей нашей страны», — сказал он.

Владимир Иконников сообщил, что Наблюдательный совет активно работал на всех этапах Конкурса и не обнаружил никаких нарушений, организаторы создавали равные условия для всех участников.

«Сегодня победили все. Победили организаторы, победили участники, победил Наблюдательный совет. Потому что мы все единой командой сделали этот Конкурс. И я вас всех поздравляю с тем, что вы — победители этого первого Конкурса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ах», — обратился Владимир Иконников к присутствующим.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и Алексей Комиссаров вручили награды победителям Конкурса. А после торжественной части врио губернатора провел с ними встречу.

**(Пресс-служба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Вспоминая прошлое

### Корейский передвижной

*(Продолжение. Начало в №14, 15)*

Среди тех, кто стоял у истоков корейского театра на Сахалине, следует назвать Ким Ги Черу, исполнявшего в 1948 году обязанности директора, а впоследствии, до апреля 1953 года, работавшего главным режиссером театра. Затем руководство театра принял на себя Г.Ф.Ким. Недавние самодеятельные артисты, многие из которых не имели опыта общения со зрителями с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сцены, трудились с редким энтузиазмом. За короткое время они составили обширную и разнообразную программу, которая пользовалась успехом не только среди корейского, но и рус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Первый спектакль «Син Чон Ден и Чун Ян Ден» сахалинские зрители встретили очень тепло. В пьесе шла речь о взаимоотношениях между старинными корейскими родами, их семейных традициях. Финальный занавес спектакля зрители встречали аплодисментами и слезами, мысленно возвращаясь на свою далекую, и теперь, кажется, недостижимую родину. Первые концерты и спектакли молодого творческого коллектива со всей очевидностью доказали необходимость создания нового национального театра и обозначили его перспективы.



Постепенно пополнилась театральная труппа. В 1951 году на Сахалин приехало

семь выпускников корейской группы актерского факультета Ташкентского театрально-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института. Позже прибыло еще четырнадцать выпускников этого же института: Цой Гир Чун, Тен Мен Дин, Цой Хе Сук, Ким Мария, Ким Татьяна, Пак Софья, Тен Ин Мук, Когай Федор, Ли Алексей, Югай Владимир, Югай Николай, Когай Ольга, Доскин А., Ли Ен Су. Весь коллектив театра состоял из 38 человек. Ведущие актеры труппы обладали яркими индивидуальностями, отличались разнообразием стилей и средств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выразительности. В разные годы директорами театра работали Г.Ф.Ким, Н.А.Югай, Ф.И.Ким, Н.Д.Хэ, художниками — Ю.И.Дян, Нам Хя Вор, Ким Ду Нам, музыкальными руководителями — Тен Ду Хан, Тен До Кан, режиссерами — Ким Ги Чер, Ким Н.П., Ли Хан Су, Н.В.Ни.

В год корейский театр давал более 300 спектаклей. Обычно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ыпускалось 15 утренних спектаклей и до 60 вечерних. Более 200 спектаклей корейские артисты показывали на выездах, в основном в городах и поселках южной части Сахалина, т.е. компактного проживания значительной части 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Цена билетов была невысока — от 5 до 21 рубля, что давало возможность посещать спектакли всем слоям населения.

Сезон 1951/52 года можно назвать переломным периодом в становлении театра. Расширение творческого состава, укомплектованного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ми актерами и режиссерами, позволило коренным образом перестроить его работу, а самое главное, поднять, как тогда говорили, идейно-художественный уровень спектаклей и концертных программ.

Знакомясь с программами спектаклей и немно-

численными газетными публикациями, разговаривая с городскими старожилами, можно сделать вывод, что корейский театр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несмотря на трудности и неустроенность, был интересен многими творческими компонентами. Он ни в коей степени не повторял и не копировал областной драматический театр своими традиционными классическими жанрами. Он сам обладал яркой и своеобразной формой, сценической стилистикой, стремлением найти «стык» с русским театром. Так, например, в 1951 году репертуар театра состоял исключительно из пьес корейских авторов: «Южнее 38-й параллели» (Тхай Дян Чун), «Сим Чен», «Радостная жизнь» (Цай Ен), «Родина» (Ку Сам Нен) и др. В репертуаре было также три пьесы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руководителя театра Ким Ги Черы — «Чун Хян», «Свадьба без невесты» и «Хон Гиртон». Позднее в репертуарный план театра наряду с произведениями классиков корей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входили пьесы русских и советских авторов. «Золотой фонд» его репертуара 50-х годов составили спектакли «Лон Бук Сен» В.А.Кима, «Честь семьи» Г.Мухтарова, «Рабы» Тхай Ляна, «Хон Гиртон» Ким Ги Черы (1952), «Без вины виноватые» А.Островского, «За власть Советов» В.Катаева, «Опасный перекресток» А.Спешнева (1954), «Жемчуг раба» Н.Ни, «Дян Хан Мон» Цай Гир Чуна, «Возвращение в дом родной» Сон Ена (1955), «Завтра будет нашим» К.Мюфке, «Нар Бу Хын Бу» Д.Тхай, «Дян Хва и Хон Ен» В.Кима (1957), «Сим Чен» Цай Ена, «Волки» Ю Ти Хо (1958).

В среднем за год ставили пять-семь новых спектаклей. Это само по себе говорит о высоком ритме работы театра, имевший к тому же крайне напряженный график гастрольных поездок. Бывали случаи, когда театр, начав репетиции и подготовку спектакля, не мог выпустить его на суд зрителей по самым прозаическим причинам. Так, например, в 1952 году зрители не увидели премьеру спектаклей «Разлом» Б.Лавренина и «Доходное место» А.Островского из-за отсутствия костюмов и осветительных приборов. Иногда срывались выездные спектакли из-за неподготовленности или отсутствия помещений в некоторых городах и поселках. Огромные проблемы возникали по причине отсутствия собствен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Лишь в конце 1952 года корейскому театру наконец-то удалось приобрести автомашину, но это ненамного облегчило кочевую жизнь артистов.

В том же году в театре установили киноаппаратуру, и в те дни, когда не было представлений, зрители смотрели художественные фильмы. Это позволило несколько увеличить кассовые сборы и доход театра. Хотя следует отметить, что финансовые проблемы преследовали коллектив постоянно, а робкие просьбы дирекции о поддержке зачастую оставались без внимания, вызывая лишь нарастающее глухое раздражение тех, кто стоял у руководства культурными учреждениями области. Чтобы хоть как-то выжить экономически, театр был вынужден почти с самого начала разделяться на две группы: драматическую — 13 человек и концертную — 14 человек. В принципе такое решение было правильным, исходя из возможностей «зрительской базы» населения области. Это позволило театру расширить число обслуживаемых площадок за счет выслуплений концертной группы перед русским населением, которое в основном и обеспечивало театру выполнение финансового плана. Работа же драматической группы традиционно являлась убыточной.

*(Продолжение следует)*  
**И.Цупенкова(Костанова)**

**(Из книги «Долгая дорога к большой сцене», 2001)**

Сахалинская Региональн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Федерация настольного тенниса» приглашает всех желающих на 34-й чемпионат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 настольному теннису среди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Чемпионат состоится 27 апреля 2019 г. в 10-00 по адресу: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Полевая, 6.

Вас ждет увлекательная и интересная игра.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реклама

**Тел.: 50-00-50; 43-31-31**

**새고려신문 살리자**

러시아에 사시는 분들은 이 계좌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2810750340100530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 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한국에서는: 농협중앙회 계좌번호 190-01-021311

예금주 BYA VIKTORIYA

#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 В РК возмущены посещением японскими политиками храма Ясукун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выразило сожаление по поводу того, что 23 апреля японские парламентарии посетили токийский храм Ясукуни. В опубликованном во вторник заявлении представителя МИД говорится, что южнокорей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выражает разочарование и сожаление в связи с посещением японскими политиками этого храма. Также выражена надежда на то, что Япония восстановит доверие мирового сообщества, встав на путь мира, осознав и признав ошибки прошлого. В группу, совершившую паломничество в храм, входили депутаты от разных политических партий. 21 апреля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Синдзо Абэ направил Ясукуни ритуальное подношение. Абэ с 2013 года воздерживается от посещения храма, чтобы не осложнять отношения с Китаем и РК. В синтоистском храме Ясукуни хранятся списки с именами японцев, погибших в войнах с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ы XIX века. В этот перечень включены и военные преступники, казнённые после капитуляции Токио во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е.

## РК и США проводят военно-воздушные учения

22 апреля РК и США начали двухнедельные совместные военные учения. Об этом сообщил во вторник военный источник. Данные учения являются заменой военно-воздушных манёвров Max Thunder, которые проводились в течение десяти лет. В Max Thunder принимали участие около ста единиц боевой техники двух стран. К нынешним учениям привлечены истребители ВВС РК F-15K и KF-16, американские F-16, а также австралийские самолёты дальнего радиолокационного обнаружения и управления E-7A. Учения проводятся в более сокращённых масштабах по сравнению с Max Thunder.

## «Чосон кёрю» проводит в Пхеньяне экономический форум

Международ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Чосон кёрю» проводит в Пхеньяне форум с участием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компаний. Об этом организация сообщила на своей странице в Facebook. Указывается, что в рамках форума 17 экономических экспертов из Европы и Азии знакомят 100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руководства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предприятий с методами эффективного менеджмента.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длится до 27 апреля. Эксперты также намерены провести консультации об эконом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и выходе на мировой рынок. Штаб-квартира «Чосон кёрю» находится в Сингапуре. С 2010 года она проводит в КНДР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программы в сфере управления, финансовых услуг и экономической политики. Ежегодно их участниками становятся около пятисот северян.

## Останки двух борцов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Кореи захоронены на родине

22 апреля в РК доставлены останки двух борцов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страны Ке Бон У и Хван Ун Чжона. В тот же день они были захоронены на Национальных кладбищах в Сеуле и Тэчжоне. На торжественных церемониях присутствовали члены их семей, представител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и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В торжественной речи начальник Управления по делам патриотов и ветеранов РК Пхи У Чжин выразил глубокое почтение борцам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страны, которые скончались вдали от родины. Он заявил, что дело героев, погибших за свою страну, будет продолжено. 21 апреля президент РК Мун Чжэ Ин провёл в Казахстане церемонию отправки останков на родину. Он сказал, что это символ завершения их борьбы, а также честь для всех южнокорейцев.

## В Сеуле состоится фестиваль «Наурыз»

27-28 апреля на площади Чхонгечхон в центре Сеула состоится весенний фестиваль стран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Наурыз». Этот праздник символизирует приход весны по астрономическому солнечному календарю и начало нового года. Он распространён среди иранских и тюркских народов. В ходе мероприятия можно будет посмотреть танцевальные и музыкальные выступления коллективов Узбекистана, Кыргызстана, Казахстана, Таджикистана и Туркменистана. Кроме того, там состоится показ традиционных нарядов и современной моды. Участники мероприятия смогут сыграть в центральноазиатские игры и попробовать кухню этих стран. На площади будут работать павильоны посольств пяти стран,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центра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и информации по нематериальному культурному наследию, Центра культуры Азии, Университета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ов Хангук, Ассоциации дружбы РК и стран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и других организаций. (RKI)

## Президент Путин встретился с главой КНДР Ким Чен Ыном

25 апреля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на острове Русский состоялась встреча в расширенном формате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и лидера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Ким Чен Ына. Она длилась около часа.

«Сегодняшние переговоры также прошли конструктивно, по-деловому, в дружеской атмосфере, традиционной для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нашими государствами», — сказал российский лидер после переговоров на приеме в честь приезда Ким Чен Ына.

Перед встречей в расширенном формате прошли двухчасовые переговоры лидеров двух стран в формате тет-а-тет, во время которых обсуждались шаги по улучшению ситуаци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По мнению российского президента, встреча была обстоятельной. Глава КНДР назвал переговоры содержательными.

Ситуация вокруг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в последние месяцы стабилизируется благодаря многим инициативам лидера КНДР Ким Чен Ына, заявил президент РФ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на приеме в честь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лидера.

Путин указал на тот факт, что в прошлом году Москва и Пхеньян отметили 70-летие установления дипотношений. «Мы подошли к этой дате в сложной международной обстановке», — отметил он. — Тем не менее видим, что благодаря



многим инициативам товарища Ким Чен Ына в последние месяцы ситуация вокруг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стабилизируется», — передала РИА НОВОСТИ.

Путин подчеркнул, что Россия стремится активно содействовать продвижению по пути политико-дипломатического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Путин также поприветствовал шаги руководства КНДР по налаживанию прямого диалога с США, а также на нормализацию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Северной и Южной Кореями.

Лидер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приехал в Россию на своем бронепоезде 24 апреля. На станции Хасан Ким Чен Ына встретили министр по разви-

тию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Арктики Александр Козлов и губернатор Приморья Олег Кожемяко. «Много слышал хорошего о вашей стране и давно мечтал в ней побывать», — сказал глава КНДР.

Это первый зарубежный визит председателя госсовета КНДР после его избрания на этот пост. В Россию Ким Чен Ын приехал впервые. В Кремле уже назвали это событие ключевым для развития двусторонних отношений. Сам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лидер также заявил, что его приезд является первым шагом в развитии отношений с Россией.

(По материалам российских СМИ)  
(Фото пресс-службы президента РФ)

## «СЭ КОРЕ СИНМУН» объявляет о литературном конкурсе на корейском и русском языках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в честь 70-летия газеты объявляет о проведении литературного конкурса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и конкурса эссе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Работы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могут быть любого содержания. Эссе на русском ограничивается темами ис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 том числе история семьи),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и культура. Ограничений по возрасту для участия нет.

Работы принимаются в редакции по адресу: 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Чехова, 37.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указать обязательно). В электронном варианте работы можно прислать по следующим адресам: [vika131065@gmail.com](mailto:vika131065@gmail.com), [vika131065@mail.ru](mailto: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mailto:skr@sakhalin.ru).

Указать фамилию, имя, возраст, профессию, место учебы (для учащихся), контактный номер телефона.

Телефон для справок: 43-67-85, 43-72-94.

Работы принимаются до 20 мая 2019 г.

Призы:

Поездка в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в т.ч. путевка для школьников в летний языковой лагерь при университете Генхи на 2 недели).

Лауреаты награждаются грамотами и подарками.

Все участники получают сертификат участника.

## Ресторан "Гагарин"

Шведский стол (будние дни)  
с 12.00-15.00

Юбилей, свадьбы, дни рождения  
(по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й заявке)  
с 18.00-24.00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Комсомольская, 133  
тел.: 49-84-02



##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1-е полугодие 2019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за 1 месяц: 82 руб. 14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53740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На Сахалине выбрали проекты, которые лягут в основу новой региональной стратегии развития до 2035 года

Лучшие инициативы были отобраны на прошедшей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стратегической сессии, организованной при участии центра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разработок «Северо-Запад». Выработанные предложения также войдут в национальную программу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 стратегической сессии, которая проходил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 17 по 19 апреля,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140 сахалинских и 80 приглашенн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власти, бизнеса, науки, социальной сферы, общественности, а также экспертов федерального уровня из Москвы и ряда российских регионов.

– Три дня мы с вами плотно работали над тем, чтобы определить приоритеты развития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ов, выбрали проекты, которые будут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дальнейшему экономическому росту, приведут к качественным изменениям в инфраструктуре региона, социальной сфере и, как следствие, положительно скажутся на благополучии людей, – отметил глава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Как рассказал Петр Щедровицкий – ведущий стратегической сессии, член правления Фонда «Центр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разработок «Северо-Запад» и член экспертного совета при Правительств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первый день было рассмотрено около 150 инициатив по всем ключевым дл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траслям. По итогам сессии из них отобраны 10 наиболее содержательных, которые составили перечень значимых проектов для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островов в долгосрочной перспективе.

В числе лучших – инициативы по созданию Сахалинского нефтегазового индустриального парка, глубокой переработке древесины, развитию марикультуры и индустрии стройматериалов. Также наибольшую поддержку получили новые модели оказания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и подготовки кадров, востребованные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Для повышения эффективност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участники стратегической сессии предложили создать «Институты развития 2.0». Данный проект учитывает современные подходы к управлению проектными инициативами в масштабе региона и предложения по созданию новых институтов развития и модернизации существующих.

Кроме того, на сессии оформился проект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агломерации с комфортной городской средой, а также проекты по модернизации Корсаковского порта и в целом по развитию портовой системы региона, а также повышению его туристической привлекательности.

Приглашенным экспертом на секции туризма выступила руководитель департамента по работе с органами власти и партнерами Национального конгресс-бюро (Москва) Юлия Михалева.

– Эта отрасль имеет огромный потенциал, в том числе для экономики региона. Туризм находится на стыке 53 составляющих, и главное здесь – впечатление и мифотворчество. Сахалин как край света – это может стать легендой для привлечения туристов. Остров двух морей – холодного Охотского и теплого Японского, – поделилась Юлия Михалева.

Сессия проходила в форме организационно-деятельностной игры. Участники сессии выдвигали проектные инициативы, подвергали их критике, выбирали приоритетные и определяли конкретные шаги по их реализации. Преимущество этого метода в том, что проблемные задачи решаются за короткое время благодаря интенсивной коллективной работе.

– Такой формат работы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 моей памяти, применяется впервые. Наиболее ценно то, что он расширяет рамк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общения, – отметил председатель Общественной палат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ладимир Иконников.

По словам директора по стратегическому развитию группы компаний Digital Design Ельонышева, командная работа позволяет услышать множество экспертных мнений и быстро оформить их в единый проект. На стратегической сессии он выступил в качестве эксперта по информационным технологиям.

– Мы предложили создать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ое предприятие, которое будет продавать цифровые сервисы для потенциальных инвесторов. Такая компания позволит решить еще одну важную задачу – повысить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й уровень сахалинских специалистов в области IT, – отметил эксперт из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а. – Я участвовал в разного рода деловых играх. Стратегическая сессия на Сахалине примечательна тем, что здесь участвуют первые лица региона. Это повышает уровень внимания,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и, самое главное, дает уверенность, что проекты будут воплощены в жизнь.

Напомним, во время стратегической сессии участники разделились на секции по ведущим для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отраслям. Экономические проекты обсуждались на площадках, посвященных нефтегазовому, рыбохозяйственному, угольному и лесному комплексам. Отдельные секции собрали специалистов в области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и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строительства и транспорт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Также на площад-

ках рассматривались приоритеты в сферах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образования, туризма.

## На Сахалине проверили молочную продукцию

Исследования проведены на всех 13 молокоперерабатывающих предприятиях области. Поводом стало заявление зам.руководителя Россельхознадзора РФ Николая Власова о якобы выявленных фактах фальсификации сахалинской молочной продукции.

К масштабной проверке привлекли не только контролирующие органы, но и депутатов, общественников,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сообщества. На исследования были взяты образцы продукции всех 13 молокоперерабатывающих предприятий региона. Результаты озвучили на заседании профильной областной комиссии.

– Не выявлено ни одного нарушения. Фальсификат молочной продукции в регионе не обнаружен, – озвучила итоги исследований руководитель Управления Роспотребнадзора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льга Фунтусова.

Руководители молокоперерабатывающих предприятий отметили справедливость таких выводов – на производствах строго соблюдаются требования технических регламентов. Высказывания Николая Власова, по их мнению, нанесли не только материальный, но и репутационный ущерб сахалинским производителям.

В работе комиссии принял участие и заместитель секретаря Общественной палаты РФ Александр Точенов. Он озвучил позицию общественности по данной ситуации.

– Хочу отметить правильную реакцию руководства региона на проблему – не замалчивать, а открыто провести проверку, привлечь общественный и депутатский контроль, все предметно выяснить и сообщить людям, – сказал Александр Точенов. – Отлично, что в таком щепетильном вопросе, когда речь идет о здоровье людей, власть заняла принципиальную и открытую позицию. И, конечно, важны результаты проверки – сахалинские предприятия не допускают нарушений, на местный рынок поступает только качественная молочная продукция, которая отвечает требованиям федерального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а.

## Сахалинским льготникам компенсируют взносы на капремонт

С апреля текущего года островитяне, имеющие инвалидность 1, 2 групп, семьи с детьми-инвалидами, а также жители области старше 70 лет могут получить компенсацию по уплате взносов на капремонт.

Изменения в областное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о вступили в силу с 1 апреля 2019 года.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Татьяна Романец пояснила, что поменялась только форма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льготы. Теперь она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в виде компенсационных выплат. Размер остался прежний – 100 процентов.

– Гражданам, которые раньше пользовались этой мерой поддержки, – проходить и перерегистрацию не требуется, компенсацию за оплату капремонта будут начислять в автоматическом режиме, – заверила Татьяна Романец.

Напомним, что мерой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в виде 100-процентной компенсации за оплату взносов на капремонт могут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жители области старше 70 лет, имеющие в собственности жилые помещения. Аналогичная поддержка установлена и для инвалидов 1, 2 групп, а также семей с детьми-инвалидами. За счет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для них введена компенсация расходов на уплату взноса на капитальный ремонт общего имущества в многоквартирном доме в размере 50 процентов, в дополнение к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льготе в аналогичном размере на федеральном уровне.

– Мне 52 года, я инвалид 1 группы. Знаю, что в новых квитанциях вновь будет указана плата за капитальный ремонт. Позвонила в соцзащиту, все объяснили, эти деньги вернут в полном объеме, – рассказала жительница села Озерское Нина Десятова.

В министерстве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обращают внимание тех, кто только планирует начать пользоваться льготой по компенсации взносов на капремонт. Для оформления необходимых документов нужно написать заявление в отделении центра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по месту жительства.

Телефон для справок: +7 4242 4943-01, подробности можно узнать на сайте министерства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https://msz.admsakhalin.ru/>.

## Японские туроператоры намерены сотрудничать с сахалинскими коллегам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на встрече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туристиче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Японии была представлена концепция развития отрасли туризма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Основными ее направлениями стали культурно-познавательный, горнолыжный, экологический, экстремальный, рыболовный, этнографический и гастрономический туризм.

– Мы хотим развивать экстремальные виды, для этого разрабатываются туристические маршруты на снеговыхходах. Также нашим гостям интересна рыбалка, которая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хороша круглый год, – рассказала руководитель департамента туризма област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туризма и молодежной политики Наталья Пахолкова.

– Главными наших государств поставлена амбициозная задача вывести двусторонне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на качественно новый уровень. Одной из перспективных сфер является туризм, – отметил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спорта, туризма и молодежной политик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ртем Подшивалов, приветствуя японскую делегацию.

– Япония является лидером среди других стран, туристы из которых посещают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Чтобы к нам приезжало еще больше гостей из Страны восходящего солнца, мы создаем комфортную и современную инфраструктуру гостеприимства, развиваем транспортное направление. – Уже летом этого года мы хотим увеличить туристический поток из обеих стран.

С японской стороны туроператоры очень заинтересованы в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с сахалинскими коллегами, – рассказа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Ассоциации туроператоров Японии Дзюнго Кикума. – Наши туристы любят смотреть на цветы, которые растут на Сахалине, природу острова, наследие японского периода, но мы хотим расширить список развлечений. Например, можно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сахалинской кухней. Жители Японии знают, что на острове очень вкусные морепродукты.

Все нововведения найдут отражение в концепции развития туризм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азработкой этого документа занимались не только специалисты департамента туризма областного минспорта, но 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туристических компаний региона, а также инвесторы.

## На Сахалине откроется новая автомобильная газозаправочная станция

Еще одна газозаправк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оявится в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е года на пересечении улиц Пуркаева и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й. Такая информация была озвучена 22 апреля на совещании в областном правительстве.

К началу год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газомоторное топливо использовали 518 автомобилей. До конца 2019-го на природном газе будет ездить 1 тысяча машин. А в 2025 году показатель вырастет в пять раз. Это лишь около 2 процентов всего автотранспорта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 Такие темпы роста являются слишком низкими,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заслушав доклад регионального агентства по развитию электроэнергетики и газификации. – В регионе, где в больших объемах добываются углеводороды, жители должны дышать чистым воздухом, не загрязненным выхлопными газами.

Основным сдерживающим фактором для перевода транспорта на метан является отсутствие автомобильных газозаправочных станций (АГНКС) в районах области. На совещании были поставлены задачи – сформировать земельные участки для строительства АГНКС в восьми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ях, а также обустроить площадки для передвижных автомобильных газовых заправщиков (ПАГЗ) в пяти районах.

Сегодня на Сахалине действуют две газозаправк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ервая – компании «Газпром газомоторное топливо» – заправляет все виды автотранспорта. Вторая –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о-строительной компании «Сахалин» – только для передвижных газовых заправщиков.

В ближайшие годы будет введено еще семь АГНКС. Появится новая станция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а также заправки в Тымовском, Макарове, Ногликах, Поронайске, Корсакове и Долинске. Часть затрат н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м компенсируют из федерального 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бюджетов.

Кроме того, будет приобретено шесть передвижных газовых заправщиков: для Невельска, Холмска, Анивы, Смирных, Ильинского и Охи. С марта этого года ПАГЗ уже работает в Корсакове, где обслуживает муниципальную технику и автотранспорт совхоза «Корсаковский».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ействуют меры поддержки по переводу транспорта на голубое топливо. Муниципальным образованиям предоставляются субсидии на закупку газовых автобусов и техники ЖКХ. Сахалинским автоладельцам возмещают 70 процентов затрат на переоборудование машин, а льготникам – 100 процентов. Транспортный налог для авто, работающих на метане, снижен в два раза.

В 2019 году будет приобретено 7 газовых автобусов для Невельского и Корсаковского районов, 32 единицы коммунальной техники для Холмска, Корсаковского районов 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а также 10 машин для сельхозпредприятий. На эти цели в бюджете предусмотрено более 258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Свыше 9 миллионов направят на субсидии для сахалинцев, которые переоборудуют свои авто.

Напомним, перед сахалинским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стоит задача: к 2021 году удвоить уровень газификации области и довести этот показатель до 65 процентов. К 2025 году область должна быть полностью газифицирована с помощью сетевого газа и СПГ. Уже сегодня газ подведен к селам Березняки и Старорусское, возможность подключения получили 200 домов. Строится первый этап межпоселкового газопровода «Восточный»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Началась совместная с «Газпромом» актуализация Генеральной схемы газоснабжения и газификации области.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여성독립운동 서울전] ③ 임정의 깃발 아래 모여들다

(전호의 계속)

영화 '암살' 모델 남자현, '임정 어머니' 판낙원을 만난다  
소설 '상록수' '세 여자' 주인공과 해녀 항일투쟁사도 전시



· 암살' 여 주인공 안옥윤 역을 맡은 배우 전지현(왼쪽)과 영화의 모티프가 된 독립지사 남자현. [케이퍼플럼 국립여성사 전시관]

2015년 7월 개봉된 영화 '암살'(감독 최동훈)은 1930년대 일본의 조선 주둔군 사령관과 친일파 거두를 처단하려는 독립군의 활약을 흥미롭고 감동적으로 그려내 1천270여만 관객을 불러 모았다. 주연배우 전지현이 연기한 저격수 안옥윤은 여성 독립투사 남자현을 모티프로 삼았다.

3·1운동을 계기로 독립운동에 뛰어들던 남자현은 서울에서 만세운동을 펼친 뒤 만주로 건너가 무장투쟁을 펼치고 여성 계몽운동에 앞장섰다. 1925년 사이토 마코토(齋藤實) 조선 총독을 사살하려다 체포된 데 이어 1933년 무토 노부요시(武藤信義) 만주국 일본전권대사 암살 계획을 세웠으나 부하의 밀고로 투옥됐다.

남자현은 총독 처단에 나서고 손가락을 세 개나 잘라 '여자 안중근'으로 불리면서도 서로군정서에 입단해 독립군들을 보살피는가 하면 안창호 등 수많은 애국지사의 옥바라지를 도맡아 '독립군의 어머니'란 별칭도 얻었다.

판낙원은 김구의 어머니로도 유명하지만 1922년 상해(上海)로 건너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을 돕고 독립군 군자금을 마련해 '임정의 어머니'로 꼽힌다.



최초의 여성 비행사 권기옥. [국립여성사전시관 제공]

권기옥은 승의여자학교 재학 중 비밀결사대 송죽회에 가입해 만세운동과 의열투쟁에 나섰다. 중국 상해로 탈출했다. 임시정부의 추천으로 운남(雲南) 육군항공학교에 입학해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비행사가 됐다. 그 뒤 중국 공군에서 복무하는 한편 한국애국부인회 재건에 참여해 독립운동을 돕고 여성들에게 독립사상을 고취했다.

애국부인회는 3·1운동 직후부터 광복 때까지 여성독립운동의 젖줄 역할을 한 단체다. 1919년 6월 평양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속속 발족했으며 중국 간도, 러시아 연해주, 미국 하와이와 캘리포니아주 등지에서도 부인회가

결성돼 계몽운동의 불길이 타올랐고 독립운동의 열기로 이어졌다.



재건 한국애국부인회 지도부. 왼쪽부터 최선화·김현주·김순애·권기옥·방순희. [국립여성사전시관 제공]

임시정부 부주석 김규식의 부인이자 상해임시정부 대한애국부인회장과 중경(重慶)임시정부 재건 한국애국부인회 주석으로 활동한 김순애, 임시정부 국무원비서장 최창식의 부인으로 모스크바극동인민대회에 한국 대표로 참석한 김원경 대조선독립애국부인회 회장, 하와이에서 대한부인구체회를 조직하고 임정에 독립자금을 보낸 황마리아, 캘리포니아주에서 신한부인회와 대한여자애국단을 창설한 강혜원(김성권 부인), 미국 대한여자애국단에서 활약한 이혜련(안창호 부인),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애국부인회를 조직하고 상해여자청년회를 창립한 이의순(이동휘의 딸) 등이 주역이다. (출처: 연합뉴스)

### 유즈노사할린스크, 한국어 능력시험에 58명 응시



지난 21일(일) 사할린한국교육원에서 제 63회 한국어능력시험(TOPIK)이 치러졌다. 한국어능력시험은 재외동포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은 한국 유학, 기업체 취업, 한국영주권 신청 등을 위해 많이 치른다. 올해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는 토픽 1(1-2급, 초보자 수준)에는 48명이 응시했고, 토픽2에는 10명이 응시했다고 사할린한국교육원이 전했다.

(사진: 사할린한국교육원 제공)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иглашает на работу молодых людей на должность корреспондента. Испытательный срок 3 месяца, знание ПК на уровне пользователя, корейский - начальный уровень. Тел. 43-59-80, 43-67-85.

### 한국국제교류재단, 해외 25개 대학서 한국 강좌 담당할 객원교수 공모

4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지원서 접수...올해 가을학기 파견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이시형, 이하 KF)은 올해 가을부터 해외 대학에 파견할 한국어·한국학 객원교수를 4월 3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KF 객원교수 파견 사업은 한국어 교육과 한국학 연구에 관심이 있는 해외 대학이 객원교수를 초청하고, KF가 객원교수를 선발 및 파견,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가을학기 KF 객원교수 파견 대상 대학은 프랑스 국립동양어문화대, 핀란드 헬싱키대, 독일 뷔르츠부르크대, 터키 앙카라대, 러시아 극동연방대, 모스크바국립대, 카자흐스탄 나자르바예프대, 이집트 아인샤스대, 코스타리카 국립코스타리카대(UCR) 등 22개국 25개 대학으로 KF는 총 27명의 한국어 또는 한국학 전문가를 선발할 예정이다.

KF 한국어 객원교수 공모 참가를 위한 공통 신청 자격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소지자이거나 ▲국어국문학/국어교육학 박사 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정규 교육기관에서 외국인 대상 한국어 강의 경력 3년 이상인 자이다. 한국학 객원교수의 경우 해외 대학이 정한 전공에 대한 박사 학위 소지자가 응모할 수 있다.

KF 객원교수는 해외 대학의 한국어(학) 강좌를 신설하거나 기존 강좌의 안정적 운영 및 지속적 확대에 기여하는 한편, 해외 대학의 한국학 활동 진흥과 현지 대학(원)생의 한국 이해도 제고를 위한 활동을 하게 된다.

4월 현재, 40개국 53개 대학에 파견된 54명의 KF 객원교수가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알리고, 지한 인재를 양성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공모와 관련해 전체 파견 대상 대학 목록 및 대학별 세부 신청자격, 구비서류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KF 온라인 신청 시스템 (<http://apply.kf.or.kr>) 또는 KF 홈페이지 ([www.kf.or.kr](http://www.kf.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서는 KF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서만 접수 가능하다. (재외동포신문)

### 문 대통령, 카자흐스탄서 애국지사 유해 봉환식 주관

계봉우 지사, 황운정 지사와 배우자 모두 4위의 유해 대통령 전용기로 모셔



▲ 카자흐스탄을 국민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4월 21일 오후 카자흐스탄 수도 누르술탄에서 현지에 안장돼 있던 계봉우·황운정 지사의 유해 봉환식을 주관했다. 추모사 하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 청와대)

카자흐스탄을 국민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4월 21일 오후(현지 시간) 카자흐스탄 수도 누르술탄에서 현지에 안장돼 있던 계봉우·황운정 지사의 유해 봉환식을 주관했다.

계봉우 지사는 함경남도 영흥출신으로 1919년 중국 상하이에서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북간도 대표로 임시의정원 의원으로 활동했고, '독립신문'에 독립정신을 고취하는 글을 게재했다.

카자흐스탄을 국민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4월 21일 오후 카자흐스탄 수도 누르술탄에서 현지에 안장돼 있던 계봉우·황운정 지사의 유해 봉환식을 주관했다. 계 지사는 1937년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 후에도 민족교육에 전념해 '조선문법', '조선역사' 등을 집필했다. 이에 정부는 1995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황운정 지사는 함경북도 온성출신으로 1919년 함경북도 중성과 온성 일대에서 3.1운동에 참가했으며, 이후 러시아 연해주에서

무장부대의 일원으로 선전공작을 통한 대원 모집과 일본군과의 전투에 참여했다. 이에 정부는 2005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카자흐스탄 애국지사 유해 봉환 사업은 2017년부터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이번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계기로 대통령 주관 행사로 치르게 됐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광복절 계기로 독립유공자 등 청와대 초청행사에서 "해외 독립유공자 유해 봉송 의전을 격상하고,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이번 봉환식에서는 두 애국지사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모두 4위의 유해를 유가족과 함께 대통령 전용기(2호기)로 모셨다.

봉환식은 대통령 전용기 앞에서 유해 운구, 국민의례, 헌화, 건국훈장 헌정, 대통령 추모사, 유해 승기순으로 진행됐다.

유해 봉환식은 카자흐스탄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엄숙히 진행됐으며 문 대통령은 우리 군악대가 아리랑을 연주하는 가운데 계봉우 지사께 건국훈장 독립장을, 황운정 지사께 건국훈장 애족장을 헌정했다.

문 대통령은 추모사를 통해 "네 분을 모시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임무이며, 독립운동을 완성하는 일"이라며 "정부 출범 직후부터 네 분의 유해를 봉환하기 위해 유가족, 카자흐스탄 정부와 협의해 왔고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애국지사를 고국에 모실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유가족과 고려인 동포들께 자긍심의 뿌리이며, 기댈 수 있는 언덕일 텐데 어려운 결정을 한 유가족에게 위로와 감사를 드리고, 성심성의를 다해 도와준 카자흐스탄 정부에도 감사드린다"라며 "머나먼 이국 땅에서 생을 마감하신 독립유공자들의 정신과 뜻을 기리고, 최고의 예우로 보답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카자흐스탄은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항일 무장투쟁을 펼치던 독립운동가들과 그 후손들이 정착한 소중한 인연이 있는 곳으로, 이번 유해 봉환식을 계기로 남북방정책의 핵심 협력 대상 국가인 카자흐스탄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가족의 의사에 따라 계봉우 지사 부부의 유해는 국립서울현충원에, 황운정 지사 부부의 유해는 국립대전현충원에 각각 안장됐다.

계봉우 지사의 손녀인 신 류보 씨는 "조부께서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열망하셨는데, 마침내 그 꿈이 이뤄지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국 정부가 이 모든 수고와 비용을 부담해 줘 후손들은 매우 감사해 하고 있다"고 전했다.

4월 21일 현재 국외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유해는 총 152위다. (재외동포신문)

# 이모저모

(2면의 계속)

Период проведения тренинга: с 17 по 21 мая. Теоретическая часть обучения будет проводитьс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актическая — в Невельске.

Для проведения тренинга приглашены ведущие эксперты 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центра спасения морских млекопитающих: Райан Бергер (руководитель спасательных работ в северной части Калифорнии) и Дэйв Занисер (директор по реагированию и проведению спасательных операций).

Тренинг проводится на бесплатной основе. Кофе-брейки и проезд до Невельска будут обеспечены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Заявки на участие принимаются до 10.05 на email [sakh.m.m.rescue@mail.ru](mailto:sakh.m.m.rescue@mail.ru).

На тренинг приглашаются те, кто готов в будущем участвовать в спасательных операциях, сообщают "Друзья океана".

## 서울시, 작년 1/4 분기 300 여명 외국인 방문

서울시는 24일 작년 1/4분기에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303만 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2017년 같은기간 보다 3.4% 증가한 수치다.

시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 41.2%는 드라마·예능 프로그램 촬영지를 방문했다. 이것은 재

작년 같은 시기에 비해 8.8% 늘어난 셈이다.

관광객 81%는(7.6% 증가) 식도락 관광을 가장 좋은 여행체험으로 보았다. 한식과 길거리 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특히 높았고, 불고기가 인기 만점이었다. 한국음식에 대한 평가는 불고기(38.8%), 비빔밥(29.3%), 치킨(21.8%), 삼겹살(20.1%), 김밥(20.1%) 등의 순으로 선호도가 조사됐다.

## В первом квартале прошлого года Сеул посетили 3 млн иностранных туристов

В первом квартале прошлого года Сеул посетили 3 млн 30 тыс. иностранных туристов, что на 3,4% больше, чем в тот же период предыдущего года.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а 24 апреля мэрия Сеула.

По её данным 41,2% иностранных туристов, побывавших в Сеуле в первом квартал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посетили места съёмок южнокорейских телесериалов и развлекательных программ. Это на 8,8% больше, чем в аналогичный период позапрошлого года.

81% туристов назвали наилучшим опытом при посещении Сеула блюда корейской кухни, что на 7,6% больше. К числу наиболее вкусных корейских блюд большин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туристов отнесли жареную говядину пульгоги(38.8%). Затем следуют рис с овощами - пибимпап(29.3%), жареные куры(21.8%), жареное подкожное сало с прослойками мяса самгёпсаль(20.1%) и роллы кимпап(20.1%).

(사할린주 및 러시아 언론기관 자료들에서)

새고려신문 창간 70주년 기념

# 2019년 우리말 및 러시아어 문예콩쿠르

2019년 6월 1일은 새고려신문 창간 70주년 되는 날입니다. 이와 관련해 새고려신문사는 문학콩쿨(글짓기)을 개최합니다.

• **공모대상:** 사할린 및 연해주·극동에 살고 있는 주민들(현지인)

• **공모부문:** 글짓기, 체험수기

• **공모주제:** 한민족의 긍지와 동포애를 고취시키고, 민족전통 문화에 대한 자랑과 긍지심을 일깨우는 글. 한국어 본문 주제는 아무 제한이 없으나 러시아어로는 <우리 가족>, 한국어와 한국문화, 전통, 풍습, 사할린 한인 역사에 관련된 글만 받습니다.

• **공모기간:** 2019년 5월 중순까지

• **시상:** 상장과 한국방문권 비롯한 여러상품

• **주최:** 사할린 새고려신문사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콩쿠르 자료들을 e-mail: [skr@sakhalin.ru](mailto:skr@sakhalin.ru), [vika131065@mail.ru](mailto:vika131065@mail.ru) 아니면 유즈노사할린스크, 체호브 거리 37, 새고려신문사로 보내주시시오.

전화: 43-59-80, 43-72-94.

콩쿠르조직위원회

## ЕДА.САХ.КОМ СЕРВИС ЗАКАЗА ЕДЫ



Наш сервис объединяет **БОЛЕЕ 50 ЗАВЕДЕНИЙ**



Мы передали более **БОЛЕЕ 100 ЗАКАЗОВ**



Нашим сервисом пользуются **БОЛЕЕ 25 000 ПОЛЬЗОВАТЕЛЕЙ**



Вам помогут сделать выбор **БОЛЕЕ 5 000 ОТЗЫВОВ**



### ПОЧЕМУ С НАМИ УДОБНО?

Большой выбор заведений

Сортировка заведений по отзывам и рейтингу

Удобная разбивка по категориям

Популярные блюда

Информация о скидках и акциях в заведениях

Заказы запоминаются, их легко повторит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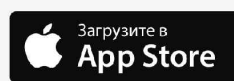
### ПОПРОБУЙТЕ

НА САЙТЕ [eda.sakh.com](http://eda.sakh.com)

Десктопная версия

Мобильная версия

ИЩИТЕ ПРИЛОЖЕНИЕ [eda.sakh.com](http://eda.sakh.com)



реклама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ая장(주필) 배 워토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mailto: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53740  
Тираж 13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